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 3절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서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 13절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 14절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5장에서는, 서로 다른 인권보호에 관한 몇 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태형(채찍질에 의한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에서 처럼,

먼저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에 출두」해서 재판소에서 「판결」을 청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태형이라고 하는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쪽의 주장을 들은 후에,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태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재판장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형량에 맞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로, 그 이상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죄를 지어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며,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율법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순간,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으로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재판을 받고, 판결받도록 율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축에 관한 것입니다만,

아무리 가축이라도 정당한 보수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소한테 탈곡용인 발구를 달아서 곡물의 낱알을 줄기에서 때어냅니다.

발구에는 뾰족한 돌이 매달려 있어, 소는 곡물의 줄기위를 뱅글뱅글 돌아 걸어가면서 탈곡합니다.

탈곡한 것은,

폭이 넓고 평평한 삼지창에 올려져 공중으로 날려서, 바람이 겨를 날려보내 곡물의 낱알이 남게 됩니다.

무거운 발구를 뱅글뱅글 끌면서 걷는 것은 아무리 소라 할지라도 힘든 중노동입니다.

배가 고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소가 일한 결과로서 탈곡을 할 수 있었으므로, 노동자인 소도 그 대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곡하고 있는 곡물을 먹지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소의 정당한 권리(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하면서 교회의 교직자들에 대한 보수에 적용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6-14)

생활형편이 안 좋아서 목회와 전도를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두배의 보수」를 줄 것을 디모데 목사에게 명령한 것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17-18)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많이 먹고 많이 일 하라,
생활고라고 하는 「망」을 씌워서 주의 사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에서는, 소위 「형사취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제가 있어, 그 중 한쪽이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살아 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여, 태어난 첫 아들에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은 형제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
나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고 할 경우에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서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야할까,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하니, 매우 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 율법은 매우 강한 강제성을 갖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고, 하지 않으면 창피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의지할 친척이 없는 과부한테 있어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룯은 이 율법으로 유복한 보아즈와, 합법적으로 정당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땅도 없으면 빌어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룯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않고 「이삭줍기」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같이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형사취수」제도 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싸움이 났을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
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음낭」은「급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남편쪽의 아내가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흐뭇한 부부애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저항하지 못하게 해서 굴욕감을 느끼게하려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는」공격은

그야말로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만, 그것을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짚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하고 말할 정도로 엄하게 가차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저울 추」, 「되」 등의 저울을 바르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석탄석으로 둥근 공모양으로 만들어진 「저울 추」가 많고, 그 중에는 청동이나 금속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저울 접시에 물건을 올려서 무게를 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되」는 곡물등의 양을 재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저울」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인류는 「저울」의 발명에 의해서 혁명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유목민은 가축의 수 뿐만 아니라 무게로 공평하게 거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민은 토지의 면적이나 수확량을 평가할 수 있고.

여행자는 거리를 계산해서 일정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건물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울」은 사회생활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저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저울」은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토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사지만, 어느정도 지나 속은걸 알게 되면 다시는 사러 가지 않습니다.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야합니다.

부정한 저울로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에 신뢰를 잃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네 날이 길」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서는

속적인 아멜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서도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억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잊지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인은,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며 가나안 남부 네게브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조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불신앙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대심을 갖고,

피로로 지쳐 있던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갑자기 「쳐」, 고통을 주었습니다. (출 17:8-16)

1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쳤고」 의,

「치다」의 본래 의미는 「만나다」입니다.

앞절에서 「부정한 저울」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즉흥적이며 질서 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아말렉」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18절 후반부에서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는 부분에서

인정사정 없이 잔학무도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도」 「아말렉」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부터 「아말렉」은,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적대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시대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 상징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자손은, 후에도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줍니다.

포로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운 「유대인의 적」하만도 「아말렉」의 「아각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스더 3:1, 10)

이렇게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 「아말렉」을 「잊지 말고」, 오히려 철저하게 대항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아말렉」을 전멸시킬때까지 싸울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아말렉」에게 멸망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모두를 없앨 것을 명령받았지만,

정욕에 눈이 멀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스스로 자처한 불신앙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직접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아말렉」에 철저하게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여기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직 눈앞의 이득과 정욕만으로 사는 「아말렉」적인 삶,

사울왕도 그것에 미혹되어 축복도 생명도 잃어버린 「아말렉」적인 인생,

이세상 끝날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아말렉」의 악령

그것들을 잊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과 철저하게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